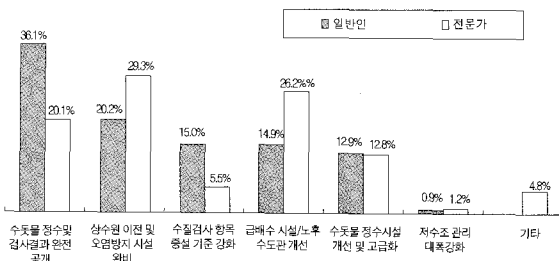


21세기 국민 환경의식 조사 (10)

자료제공 환경부

결과분석

- 환경전문가 그룹의 경우, 수돗물의 對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해결과제로는 '상수원 이전 및 오염방지 시설완비' (29.3%)를 지적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. 그 다음으로 '노후 수도관의 교체' (26.2%), '수돗물 정수 및 검사결과 완전 공개' (20.1%) 순으로 나타남.
- 전체적으로 환경전문가들은 '상수원 보호'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한 반면, 일반인들은 '수돗물 정수과정 및 수질검사결과'의 공개'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결방안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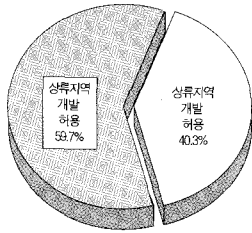
식수 응용 형태	응답률		
	2000년 3월	97년 9월	96년 1월
수돗물 정수, 검사결과 완전 공개	58.8%	61.5%	47.9%
급배수 시설 개선*	15.3%	15.5%	23.3%
상수원 이전, 오염방지 시설 완비	10.1%	7.0%	5.4%
수질검사 항목중설 기준 강화	5.9%	5.1%	10.7%
수돗물 정수시설 개선 및 고급화	4.7%	4.2%	9.8%
저수조 관리 대폭 강화*	4.6%	4.0%	2.8%
생수 판매 억제*	-	-	-
신뢰성있는 기관 및 국제기구의 안전성 공인	-	-	-
무응답	-	2.6%	-

6. 상수원 관리를 둘러싼 상하류 지역간 대립에 대한 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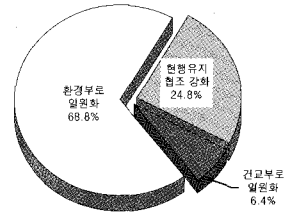
결과분석

- 상수원 관리를 둘러싼 상하류 지역간 대립시 해결방안으로 일반국민의 59.7%는 '하류지역에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처리시설을 완벽히 갖춘다면 상류지역의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'는 상류지역 개발중시형 의견을 나타냄. 반면 '하류지역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, 상류지역개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'는 하류지역 보전중시형 의견은 40.3%로 조사됨.
- '상류지역 개발중시형' 의견은 대구경북(78.7%)과

강원(79.2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, '하류지역 보전중시형' 의견은 부산경남(55.1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간 시각차가 두드러지고 있음.



< Base = 1,500 >



< Base = 1,500 >

지역별	서울	부산/경남	대구/경북	인천/경기	광주/전라	대전/충청	강원
상류개발 허용	65.4%	44.9%	78.7%	52.4%	52.5%	69.5%	79.2%
상류개발 불허	34.6%	55.1%	21.3%	47.6%	47.5%	30.5%	20.8%

7. 향후 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

결과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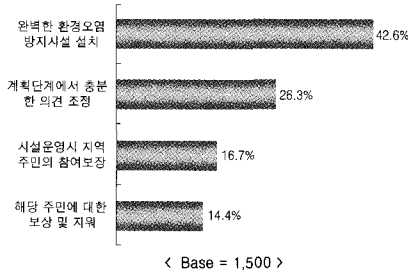
- 향후 '물관리 업무'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일반국민의 과반수 이상(68.8%)은 물관리 업무를 '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'는 의견을 제시함. 반면 '건설교통부로 일원화해야 한다'는 의견은 6.4%에 불과하였으며, '현행 이원화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'는 의견도 24.8%로 나타남.
- 환경전문가 그룹 역시 향후 '물관리 업무'의 효율화를 위해 '환경부로의 일원화가 적합하다' (66.5%)는 의견을 제시함. 반면 '양부처간 협조 강화'를 지정한 의견은 29.9%, '건설교통부로의 일원화'는 3.6%로 각각 나타남.

- 이러한 결과는 '물관리'가 환경문제의 핵심사안이라는 점에서 환경부로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됨.

8. 쓰레기 처리 시설의 입지선정 문제 해결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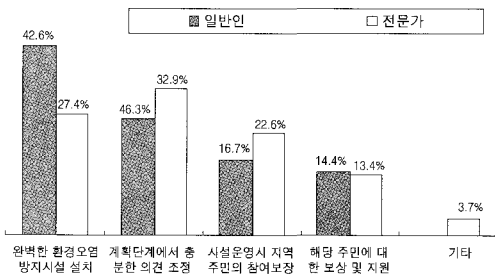
결과분석

- 쓰레기 처리시설을 둘러싼 NIMBY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로는 '완벽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' (42.6%)를 지정한 의견이 1순위로 나타남. 그 다음으로 '계획단계에서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의견 조정' (26.3%), '시설운영시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' (16.7%), '해당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' (14.4%) 순으로 조사됨.
-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가 중요하다고 지정한 의견은 대전/충청(51.0%), 강원(54.7%), 대도시(46.0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, NIMBY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'오염방지시설' 및 '적극적인 주민의견수렴'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.



결과분석

□ 쓰레기 처리시설을 둘러싼 NIMBY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환경전문가들은 '계획단계에서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의견 조정' (32.9%)을 지적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 그 다음으로 '완벽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' (27.4%), '시설운영시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' (22.6%), '해당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' (13.4%) 순으로 조사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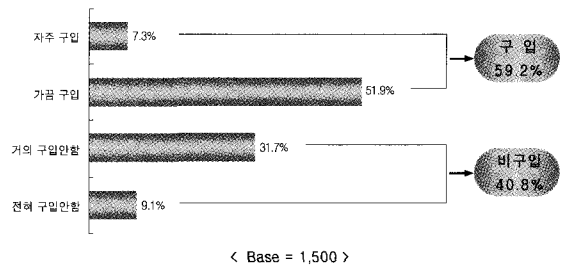
9. 재활용제품 구입 빈도

결과분석

□ 우리 나라 국민들의 재활용제품 구입 빈도를 살펴보면, '구입한다'는 의견은 59.2%(자주 구입 7.3%, 가끔 구입 51.9%)로 나타났고, '구입하지 않는다'는 의견은 40.8%(전혀 구입 안함 9.1%, 거의 구입 안함 31.7%)로 조사되어, 재활용 제품을 구입하는 응답자

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, 향후 재활용 제품 구입에 대한 적극적 홍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됨.

- 재활용제품 구입 경험은 연령별로 30대(64.6%), 지역별로 부산/경남(65.0%), 인천/경기(69.7%) 거주자, 직업별로 화이트 칼라(63.1%), 주부(65.9%)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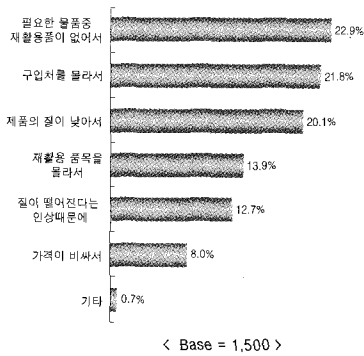


10. 재활용제품의 활용률이 낮은 이유

결과분석

□ 재활용제품의 활용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해 '필요한 물품 중 재활용품이 없어서' (22.9%), '구입처를 몰라서' (21.8%), '제품의 질이 낮아서' (20.1%)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, 재활용품 품목과 구입처 확대와 아울러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. 그 다음으로 '재활용 품목을 몰라서' (13.9%), '질이 떨어진다는 인상때문에' (12.7%) 순으로 높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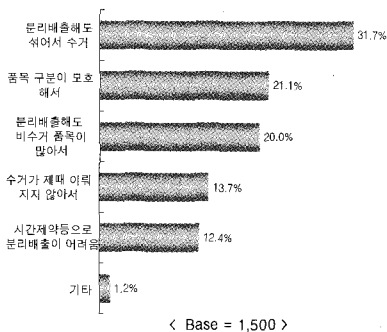
- 재활용 활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자영업 종사자는 '필요하지 않아서' (26.2%), 주부는 '구입처를 몰라서' (25.1%), 학생은 '제품의 질이 낮아서' (27.8%)라고 지적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

11. 현행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

결과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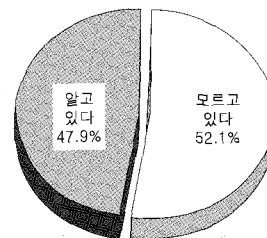
- 현행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결과, '분리 배출을 해도 섞어서 수거해 간다'는 지적이 31.7%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, 수거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·감독 방안이 마련이 시급히 요망됨. 그 다음으로 '재활용이 되는 품목과 되지 않는 품목의 구분이 모호하다' (21.1%), '분리 배출해도 수거해 가지 않는 품목이 너무 많다' (20.0%), '수거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' (13.7%) 순으로 높게 나타남.
- '분리배출해도 섞어서 수거해 가는 것'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의견은 여성(34.4%), 40대(35.0%), 50대 이상(36.1%), 지역별로 인천/경기(37.4%), 강원(34.0%) 거주자, 주부(37.1%), 학생(35.6%)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

12.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실시에 대한 인지도

결과분석

- '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' 실시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, 응답자의 47.9%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, 모르고 있는 응답자는 52.1%로 나타남. 향후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쓰레기 처리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지자는 남자(51.4%), 40대(56.6%), 50대 이상(54.0%), 기혼자(52.5%), 지역별로 대구/경북(58.0%), 광주/전라(55.7%), 강원(54.7%) 거주자, 지역특성별로 농촌지역(56.4%) 거주자, 직업별로 블루 칼라(51.5%), 자영업(51.1%), 학력이 낮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신고포상금 제도를 '모른다'는 의견은 여성(55.6%), 20대(65.3%), 미혼(67.3%), 지역별로 서울(58.4%), 대전/충청(64.2%) 거주자, 지역특성별로 대도시(56.1%) 및 상가지역(67.9%)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

다음호에 계속...